

정서진 사장님께

정서진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17학번 박수정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순식간에 지나고 청명한 가을이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시간은 아직 2020년 1월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창밖의 높고 맑은 하늘이 유독 아쉽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체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야속하게도 계절은 이렇게 계속 변해가는데, 저희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후배들을 생각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정호 회장님의 사랑과 경제대학 동문 선배님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따뜻하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간직하며 처음 장학생으로 선발된 지 1년이 지난 오늘, 3학기 장학생으로서 부족한 글솜씨지만 진심을 담아 편지를 써 내려 갑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전해드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우선 정호 장학금의 장학생으로 처음 선발되어 수여식에서 편지를 낭독했던 날이 떠오릅니다. 당시에 저는 정호 회장님의 호인 '우석'을 따라 끈기 있게 저의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의 끝에서 모두와 함께 성공과 행복을 나누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저는 그날의 다짐을 잊지 않고 정호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아낌없는 사랑을 보받아 저 또한 제가 그동안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따뜻한 사랑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또 모두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호 장학생으로서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학생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이 하루빨리 이전의 빛과 따뜻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 후배들에 대한 사랑으로 저희가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출연하신 정호 회장님, 그리고 회장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시는 정서진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정호 장학금의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회장님께 안식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정서진 사장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경제학과 박수정 올림